

것이고, 교육 자원이 열악한 소도시나 농산어촌의 학생들 또는 흥미를 자극하는 학습 교구에 접근하기 쉽지 않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더 안 좋은 교과서가 된 것입니다.

■ 질의 2) 수학교과서 내의 높은 국어 수준에 대한 문제

기초 한글 교육을 강화, 체계화하겠다고 밝힌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발맞추어 1학년 1학기 수학에서는 학생들이 글자를 몰라도 수 개념을 익힐 수 있게 하고, 국어 진도에 맞추어 학생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짧고 쉬운 단어와 문자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늘려나가도록 수학교과서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2015년 9월 23일,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면서 초등 저학년(1, 2학년)의 한글 기초 교육을 체계화, 강화하겠다고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한글을 최소 45시간 이상 배울 수 있도록 한다는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개발된 초등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는 한글 기초교육이 약 55차시 분량으로 담겼고, 아직 개발 중인 초등 1학년 2학기과 2학년 1, 2학기 교과서 속 한글 교육 분량을 모두 합치면 총 60여차시 분량이 될 거라고 합니다. 더불어 국어 외에 1학년 1학기 통합교과, 수학 등 다른 교과서에도 글자 노출을 최소화하고 듣기, 말하기 중심으로 교과서를 구성해 학생들이 한글을 읽고 쓰는 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어 교육과정의 변화에 발맞추어 초등 저학년의 개정 수학교과서도 아이들의 한글 습득 과정에 맞게 교과서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 한글 교육 시수가 늘어난 관계로 더 많은 기초 한글 교육의 분량이 1학년 1학기에 많이 배정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5 개정 수학교과서도 이를 고려하여 1학년 1학기 수학에서는 학생들이 글자를 몰라도 수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본의 1학년 수학교과서는 25쪽(1학년 전체 과정 중 1/5에 해당)까지는 어떤 문장제 글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국어 진도에 맞추어 학생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짧고 쉬운 단어와 문장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늘려나가도록 수학교과서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 질의 3) 입학 전 선행 사교육을 유발하는 교과서 구성의 문제

직관적 사고로 학습하는 단계인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수를 배우는 첫 단원을 학생들이 이미 배워 왔다는 전제하에 적은 페이지 분량으로 교과서에 편성함으로써 입학 전 선행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보도한 설명자료(2016. 8. 23.)에서는 별도의 교사 전자저작물(CD)로 충분히 이러한 문제점을 만회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하나의 예로 2쪽으로 이루어진 수 1~5까지 수 배우기를 얼마의 수업시수로 어떤 수업 방식으로 구성하여 이러한 선행 사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1학년의 첫 단원이 '9까지의 수'로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와 한 자리 수의 개념을 배우는 단

원입니다. 초등 1학년은 직관적 사고를 하는 시기이기에 수에 대한 이해도 직관적 사고를 이용해서 학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새내기들이 처음 수학을 접하면서 1~5까지의 수에 대한 개념을 익히는데 우리나라 교과서는 단지 2쪽 분량만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에 들어오는 학생이 이미 숫자에 대한 개념을 선행학습으로 배웠다는 것을 전제로 교과서를 만들었다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초등 1학년 아이들에게는 숫자를 쓰고 익히고 그 개념을 습득하기 위해 직관적 사고를 하는 많은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교과서는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쓰여야 하는데 지금의 현장검토본은 그런 면에서 매우 미흡합니다.

2쪽 분량의 1~5까지의 수 개념을 익히는데 직관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아무런 활동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 교과서(新しい數學(동경서적), 2009년 출판)의 초등 1학년 첫 단원을 보면 학생들이 직관적 사고를 위한 활동이 삽화와 사진을 통해 잘 설명되어 있고, 우리의 6배인 12쪽 분량에서 1~5까지 수에 대한 개념을 직관적인 사고를 활용한 활동을 하도록 다루고 있습니다. 게다가 12쪽 분량 중에서 본격적으로 수를 배우기 전, 직관적 사고를 통해 아이들이 수를 익히도록 6쪽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교과서는 충분한 활동을 통해 수의 개념을 직관적으로 배우고 난 다음에 숫자를 쓰는 연습을 하는데 ‘현장검토본’에서는 바로 수를 쓰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핀란드 교과서(핀란드 초등 수학교과서(Laskutaito) 번역본, 2011년 출판)에서는 1~5까지의 학습을 하나의 숫자를 배우는데 2쪽씩 할애한 것을 포함해서 우리 교과서의 8배인 16쪽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에 대한 개념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유롭게 학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질의 4) 학교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보다 어려운 수학익힘책의 문제

아이들이 혼자서 공부하는 수학익힘책이 문장이 길고 지시문이 많고, 해당 교과서에서 배우는 수준을 넘어서는 어려운 문제와 상위 학년에서 배우는 과정이 다수가 존재함으로써 학부모의 도움과 선행학습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설명자료(2016. 8. 23.)에서는 수학익힘책의 단일 도입에서 선수학습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코너와 어려운 문항에 별도의 표시(🌈)를 한 것이 선행학습을 유발되지 않게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학익힘책은 학생 스스로 수업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혼자서 복습할 때 사용하는 책이므로 해당 교과서의 내용보다 어려운 문제를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한 교육부의 견해를 알려 주십시오.

수학익힘책은 교과서와는 달리 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집에서 혼자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채점하도록 돕는 책입니다. 그러기에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1-1학기 수학익힘책은 처음부터 문장이 길고 지시문도 많아 학생 스스로 학습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글 자모를 배우는 1학년 학생이 부모와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문장을 길게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모가 확인하고 학생에게 알려

주는 예시답안 역시도 학생들이 긴 문장을 써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수학익힘책은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문제이므로 학교 수업시간에 교과서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학익힘책 현장검토본의 경우 여러 군데 수업시간에 배운 교과서의 수준을 넘어서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도해줄 교사도 없이 집에서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수학에 대한 좌절감을 일찍부터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수학익힘책이 학생이 가정에서 하도록 숙제로 제시되는 것이기에 학부모에게 노출된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선행 사교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학익힘책을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을 다 익혀서 가야 한다거나 선행 수학 사교육을 시켜야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학부모들에게 전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수학익힘책은 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스스로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학생들의 수준보다 높은 국어 실력을 요구하는 문제나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는 배우지 않은 문제가 나오므로 인해서 재미있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빈곤층의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가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줄 수 없거나 학원에도 보내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혼자 스스로 공부하기에 어려운 수학익힘책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격차가 교육 격차를 초래하는 가능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 질의 5) 교과서 제작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수정본 검토 요청

지난해 9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 고시된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초등 1, 2학년 개정 수학교과서 ‘현장검토본’이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2016. 6. 28.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발언). 이것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교과서 개발의 진행일정, 검토과정 및 검토진을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수학교과서 수정과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공개해 주시고, 내년에 보급될 교과서가 확정되기 전에 우리 단체가 교과서 수정본을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교육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2015 개정 수학교과서 현장검토본의 심각한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교육부는 이 문제의 지적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2017년에 전국의 모든 초등 1, 2학년에 적용될 개정 수학교과서 개발에 철저히 개선, 보완해야 합니다. 만약 ‘현장검토본’의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수학 선행 사교육 및 수포자 방지를 위한 2015 수학 교육과정 개정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교육부와 2015 개정 수학교과서 집필진은,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교과서와 수학익힘책을 아이들의 인지발달과 언어발달에 맞게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지적한 문제점들이 충분히 개선, 반영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필 것입니다. 확정된 이후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수정하는 작업이 더 어렵고 힘들 것이니 반드시 수정본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시기를 바랍니다.